

1. 관심도(보도량)

이번 의료계 폐업사태에 대한 방송사들의 관심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사안의 중대성을 비추어본다면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번 사태 관련 기사건수를 보면 KBS와 MBC가 똑같이 73건, SBS 59건으로 모두 205건이다. 방송사당 하루 평균 4.9건씩의 관련 기사를 보도한 셈인데, 방송3사 모두 1차 폐업개시일인 6월 20일과 22일, 그리고 2차 폐업개시일인 8월 11일에는 7건에서 12건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폐업철회가 시작된 8월 19일 이후에는 보도건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표 1 참조).

분석기간에 방송되었던 총 기사건수는 1,012건으로 의료계 폐업사태기사의 비율은 20.3%이다. 방송사별 전체기사에서 의약분쟁기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KBS가 20.3%, MBC가 19.5%, 그리고 보도건수에서는 가장 적었던 SBS가 21.3%로 보도비율에 있어서는 가장 높았다.

<표 1> 의약분업 관련 기사 건수

	KBS	MBC	SBS	전 체
6월 16일	3	3	2	8
18일	3	3	2	8
20일	11	11	11	33
22일	12	11	10	33
24일	10	9	6	25
26일	5	6	5	16
28일	3	3	2	8
8월 7일	3	4	2	9
9일	2	4	5	11
11일	9	11	7	27
13일	4	4	3	11
19일	2	1	1	4
21일	3	2	2	7
23일	3	1	1	5
계	73	73	59	205
전체 기사건수	360	375	277	1,012
총기사중 의약분업 관련기사 비율(%)	20.3	19.5	21.3	20.3

방송시간량을 보면 MBC가 총 124분 21초, KBS가 116분 26초, SBS가 95분 41초로 MBC가 가장 많았다. 방송보도 기사건수에서와 마찬가지로 방송3사들은 1차 폐업기간인 6월 20일, 22일, 24일, 그리고 2차 폐업개시일인 8월 11일에는 무려 최

고 20분까지 이번 사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표 2 참조). 한편 기사당 평균 길이는 MBC가 102.2초, KBS가 95.8초, SBS가 97.3초로 MBC가 가장 길었다.

<표 2> 방송사별 의약분업 관련 기사 방송시간

	KBS	MBC	SBS	전 체
6월 16일	5분 17초	5분 13초	3분 45초	14분 15초
18일	5분 22초	6분 15초	2분 39초	14분 16초
20일	18분 6초	16분 23초	17분 58초	52분 28초
22일	18분 40초	19분 48초	17분 32초	55분 59초
24일	17분 17초	13분 52초	8분 23초	39분 32초
26일	8분 6초	8분 58초	8분 17초	25분 21초
28일	4분 53초	5분 22초	3분 7초	13분 22초
8월 7일	4분 53초	6분 49초	4분 15초	15분 57초
9일	3분 13초	7분 4초	6분 26초	16분 43초
11일	14분 2초	19분 59초	11분 24초	45분 24초
13일	3분 57초	7분 26초	5분 5초	16분 28초
19일	3분 21초	1분 34초	1분 16초	6분 11초
21일	4분 39초	3분 50초	4분 6초	12분 35초
23일	4분 44초	1분 49초	1분 29초	6분 2초
계	116분 26초	124분 21초	95분 41초	336분 33초
기사당 평균	95.8초	102.2초	97.3초	98.5초

2. 기사유형

기사유형을 보면 절대 다수인 85.9%가 스트레이트 뉴스이며, 기획기사가 2.0%, 해설기사가 7.8%이며, 단신이 4.4%이다. 결국 전체 기사의 90.2%가 정보가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스트레이트 뉴스와 단신인 셈이다. 이에 반해 비교적 심층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해설, 기획기사는 9.8%에 지나지 않아 방송3사는 이번 사태를 매우 피상적으로 보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상적인 보도 경향은 방송사마다 약간 달랐는데, KBS가 상대적으로 심층보도를 한 셈인데, 전체 기사의 15.0%가 기획-해설기사였다. MBC는 8.3%에 불과하였고, SBS는 가장 적은 5.1%에 지나지 않았다.

<표 3> 기사유형 (%)

	KBS	MBC	SBS	전 체
스트레이트	79.5	87.7	91.5	85.9
기획기사	2.7	2.7		2.0
해설기사	12.3	5.5	5.1	7.8
단 신	5.5	4.1	3.4	4.4
계 (사례수)	100.0 (73)	100.0 (73)	100.0 (59)	100.0 (205)

$$\chi^2 = 5.5, df=6, p>.05$$

3. 기사내용

이번 사태에서 우리 방송사들이 가장 많이 보도한 내용은 “폐업으로 인한 환자들의 진료 불편 및 불만”이 23.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약분업의 문제점”이 18.0%로 두 번째, “파업돌입 및 전개”에 관한 내용이 14.1%, “정부와 국회의 대책 및 처리”내용이 13.7%로 네 번째로 많았다. 이어서 “파업철회 및 의료정상화”가 10.7%, “폐업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이와 관련된 소송과 마찰”과 관련된 내용이 9.3%, “검찰의 수사 및 관련자 구속” 내용이 4.9%이며, 기타가 5.4%이다.

결국 방송 3사들은 이번 사태에서 주로 환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진료 불편 및 불만”과 “인명 피해 및 소송” 등을 합하면 전체 보도 건수의 3건 중 1건(33.2%)이 환자와 관련된 기사인 셈이었다

방송사별로 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방송 3사 모두 “환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가장 많이 보도하였지만 두 번째로 많이 보도한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KBS와 MBC는 “의약분업의 문제점”(각각 19.2%, 23.3%)을 두 번째로 많이 보도한 것과는 달리 SBS는 “파업돌입, 전개”와 관련된 내용(16.9%)을 두 번째로 많이 보도하였다.

<표 4> 기사 내용(%)

	KBS	MBC	SBS	전 체
파업돌입, 전개	15.1	11.0	16.9	14.1
정부, 국회의 대책	16.4	12.3	11.9	13.7
진료 불편, 불만	23.3	26.0	22.0	23.9
인명피해, 소송	8.2	8.2	11.9	9.3
검찰 수사, 구속	2.7	5.5	6.8	4.9
파업철회, 정상화	12.3	8.2	11.9	10.7
의약분업의 문제점	19.2	23.3	10.2	18.0
기 타	2.7	5.5	8.5	5.4
계 (사례수)	100.0 (73)	100.0 (73)	100.0 (59)	100.0 (205)

$$\chi^2=9.4, df=14, p>.05$$

4. 뉴스 밸류

이어서 TV 3사가 의약분업사태 관련 기사를 얼마만한 관심을 갖고서 어느 정도 비중있게 기사화 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²⁾ 본 연구의 분석기간 동안 폐업관련기사

2) 뉴스밸류와 뉴스 방송순위가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실제 방송현

가 톱뉴스로 보도된 것은 모두 20번으로 전체 톱뉴스 중(14일분×3방송사=42) 47.6%를 차지한다. 이어서 각 방송사들이 이번 사태를 얼마나 비중있게 다루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뉴스밸류를 상, 중상, 중하, 하 등 4등급으로 분류하였다.³⁾ 그 결과 전체 의약분업관련 기사의 절반인 50.2%가 상에 해당하였고, 31.2%가 중상, 14.1%가 중하, 그리고 겨우 4.4%만이 하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의약분업 기사는 매우 비중있게 취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방송사별로 보면 <표 5>에서 보듯이 방송 3사가 거의 비슷하게 의약분업 관련 기사를 매우 비중있게 다루었는데, SBS는 관련기사의 54.2%가 상의 뉴스밸류를 나타냈고, KBS는 관련기사의 52.1%가 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MBC는 45.2%의 비율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SBS는 관련기사의 11.9%가 하의 뉴스밸류를 나타낸 점이 특이했는데, KBS는 하에 배치된 기사가 한 건도 없었고, MBC는 2.7%에 불과하였다.

<표 5> 뉴스 밸류 (%)

	KBS	MBC	SBS	전 체
상	52.1	45.2	54.2	50.2
중 상	32.9	31.5	28.8	31.2
중 하	15.1	20.5	5.1	14.1
하		2.7	11.9	4.4
계 (사례수)	100.0 (73)	100.0 (73)	100.0 (59)	100.0 (205)

$$\chi^2=17.5, df=6, p=.007$$

이어서 어떤 내용의 기사들이 비중있게 보도되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업철회, 정상화”관련 소식은 거의 모두가 톱 뉴스 또는 그에 준하는 비중으로 보도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기사의 90.9%가 상의 뉴스밸류를 나타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우리 방송사들이 의약분

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뉴스를 먼저 방송하고 있으며, 또한 뉴스밸류를 측정할 때 뉴스순위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뉴스밸류는 해당 뉴스의 방송순위를 기초로 하여 측정하였다.

- 3) 각 방송사들의 하루 방송뉴스 건수가 제각기 다르고, 같은 방송사라 하더라도 요일별로 방송뉴스 건수가 달라 이들의 뉴스밸류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루 평균 방송뉴스 건수를 보면 스포츠 뉴스와 날씨를 제외하고 KBS가 25.7건, MBC가 26.8건, SBS가 19.8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루에 방송된 전체 뉴스 건수의 방송순서를 4등분하여 톱뉴스에서부터 1/4순위까지를 상, 1/4순위에서 2/4순위까지를 중상, 2/4순위에서 3/4순위까지를 중하, 3/4순위에서 끝뉴스까지를 하로 분류하였다.

쟁의 정상화를 학수고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어서 “인명 피해, 소송”관련 소식은 63.2%가, “진료불편, 불만”은 59.2%, “파업돌입, 전개”는 51.7%, “검찰 수사, 구속” 관련 소식은 50.0%가 상의 뉴스밸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문제점”은 37.8%, “정부와 국회의 대책”은 겨우 14.3%만이 상의 뉴스밸류를 기록하였으며, 기타는 36.4%가 이같은 뉴스밸류를 나타냈다.

<표 6> 기사 내용별 뉴스밸류(%)

	파업돌입, 전개	정부, 국회 대책	진료불편, 불만	인명피해, 소송	검찰수사, 구속	파업철회, 정상화	의약분업 문제점	기타
상	51.7	14.3	59.2	63.2	50.0	90.9	37.8	36.4
중상	31.0	57.1	20.4	26.3	30.0	9.1	37.8	45.5
중하	6.9	25.0	18.4	5.3	20.0		21.6	
하	10.3	3.6	2.0	5.3			2.7	
계 (사례수)	100.0 (29)	100.0 (28)	100.0 (49)	100.0 (19)	100.0 (10)	100.0 (22)	100.0 (37)	100.0 (11)

$$\chi^2=51.0, df=21, p=.0002$$

5. 보도태도 및 기사의 갈등성

앵커나 기자들의 멘트에서 나타난 방송사의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도태도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내용이 아닌 앵커나 기자들의 태도만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기사의 약 3건 중 2건인 64.4%가 중립적이었다. 그리고 전체기사의 17.6%가 의사에 대해 비판적인 반면에, 정부 비판적인 기사는 4.9%에 지나지 않았고, 5.4%는 정부와 의사를 동시에 비판하였다. 따라서 전체기사의 약 4건 중 1건인 24%가 의사를 직접 비판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입장을 지지하는 기사와 의사입장을 지지하는 기사는 똑같이 3.9%이었다. (표 7 참조).

한편 각 방송사별로 보면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방송 3사 모두 중립적인 기사가 가장 많았다. 특히 SBS는 이번 사태를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하였는데, 전체기사의 81.4%가 어느 한 편을 지지하지 않는 내용이었다. 비율은 높지 않지만 SBS는 오히려 의사보다는 정부에 대해 더 비판적인 입장(각각 3.4%, 6.8%)을 취했다. 반면에 KBS가 의사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비판적이었는데, 전체 기사의 24.7%가 의사들에 비판적인 반면에 정부 비판적인 기사는 2.7%에 불과하였다. 또한 입장지지에 있어서도 정부를 옹호하는 기사는 8.2%인데 비해 의사를 지지하는 기사는 1.4%에 지나지 않았다. MBC 역시 KBS와 비슷하였는데, 전체기사의 21.9%가 의사 비판적 기사인 반면에 정부 비판적 기사는 5.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MBC

는 의사지지 입장이 8.2%, 정부지지 입장이 2.7%로 지지입장에서는 의사 입장 지지가 많았으나 그 비율이 높지 않았다.

<표 7> 보도 태도 (%)

	KBS	MBC	SBS	전 체
정부 비판적	2.7	5.5	6.8	4.9
의사단체 비판적	24.7	21.9	3.4	17.6
정부-의사 비판적	2.7	6.8	6.8	5.4
중립	60.3	54.8	81.4	64.4
정부지지, 동정	8.2	2.7		3.9
의사지지, 동정	1.4	8.2	1.7	3.9
계 (사례수)	100.0 (73)	100.0 (73)	100.0 (59)	100.0 (205)

$$\chi^2=27.6, df=10, p=.002$$

한편 각 방송사들은 이번 의료분쟁사태를 지나치게 “정부-의사”, “환자-의사”간의 갈등 또는 대결적 구도로 틀지었다. 기사 내용의 갈등성을 보면 전체기사의 64.9%가 당사자간의 갈등과 대결구도를 그렸다. 이에 반해 화합은 8.8%, 중립은 26.3%이다. (표 8 참조).

방송사별로 보면 SBS가 이번 사태를 갈등과 대결관계로 가장 많이 묘사했는데 전체기사의 83.1%가 갈등과 대결기사이다. MBC는 71.2%가 갈등기사이다. 이와는 달리 KBS는 갈등보다는 중립적인 관계를 더 많이 강조했는데, 전체기사의 43.8%만이 갈등기사이고, 46.6%가 중립적인 기사이다. (표 8 참조). 한편 화합적인 기사는 KBS가 9.6%, SBS가 8.5%, MBC가 8.2%로 방송사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표 8> 기사의 갈등성 (%)

	KBS	MBC	SBS	전 체
갈 등	43.8	71.2	83.1	64.9
화 합	9.6	8.2	8.5	8.8
중 립	46.6	20.5	8.5	26.3
계 (사례수)	100.0 (73)	100.0 (73)	100.0 (59)	100.0 (205)

$$\chi^2=27.9, df=4, p=.0001$$

이어서 갈등관계를 묘사한 기사들만 뽑아서 방송사들이 누구와 누구의 갈등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방송사들이 주로 “의사-환자”(45.1%), “의사-정부”(30.8%)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음

을 알 수 있다. 갈등기사의 75.9%가 “의사-환자, 정부”의 관계와 관련된 기사임을 알 수 있다. 방송사들은 나머지 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다. 방송사별로 보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KBS가 타 방송사에 비해 “환자-의사”(50.0%)에 더 많은 초점을 주었으며, SBS는 타방송사들에 비해 “정부-의사”(32.7%) 관계에 초점을 둔 점이 두드러졌다.

<표 9> 갈등기사의 관계유형 (%)

	KBS	MBC	SBS	전 체
정부-의사	28.1	30.8	32.7	30.8
정부, 여당-야당	6.3	3.8	8.2	6.0
검찰-의사	6.3	9.6	8.2	8.3
환자-의사	50.0	44.2	42.9	45.1
약사-정부, 의사	3.1	5.8	8.2	6.0
의료계 내부	6.3	5.8		3.8
계 (사례수)	100.0 (32)	100.0 (52)	100.0 (49)	100.0 (133)

$$\chi^2=5.2, df=10, p>.05$$

계속해서 관계유형별로 기사의 성격이 갈등인지 화합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표 10>에서 보듯이 거의 모든 관계가 화합보다는 갈등으로 묘사되었는데, 특히 “정부-의사”관계 기사의 97.6%, 그리고 “환자-의사” 관계의 85.7%가 갈등관계로 처리되었다.

<표 10> 관계유형별 기사의 갈등성(%)

	정부-의사	정 부, 여 당 - 야당	검 찰-의사	환자-의사	약 사-정 부, 의사	의료계 내부
갈 등	97.6	66.7	84.6	85.7	88.9	100.0
화 합	2.4	33.3	15.4	14.3	11.1	
계 (사례수)	100.0 (42)	100.0 (12)	100.0 (13)	100.0 (70)	100.0 (9)	100.0 (5)

$$\chi^2=10.0, df=5, p>.05$$

물론 이번 사태가 이해관계의 상충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뉴스 또한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주로 보도할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언론이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정부, 국민-의사간의 이분법적인 대결과 갈등구도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조장하는 것은 사태의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의사집단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나 부정적 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의사에 대해 비인간적,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과 적개심을 심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사태가 해결된 뒤에도 그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사회통합과 공동체 의식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 하겠다.

6. 뉴스의 초점인물

이어서 어떤 사람이 뉴스의 초점이 되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역시 이번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의사와 병원관계자”가 37.1%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환자나 시민단체”가 26.8%로 두 번째로 많았는데, 결국 전체 기사의 대부분인 63.9%가 의사와 환자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춘 셈이다. 이와는 달리 “정부”(정부관리, 대통령 등)는 8.3%, 국회가 6.3%, 검찰이 4.9%, 그리고 “정부와 의사단체”를 동시에 초점인물로 다룬 기사가 5.4%, 약사단체가 2.9%이며, 기타가 8.3%이다(표 11 참조).

한편 1차 파동(6월)과 2차 파동(8월)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난다. 1차 파동에 비해 2차 파동에서 의사나 병원관계자에 초점을 둔 기사의 비율이 32.1%에서 45.9%로 크게 늘어났고, 환자나 시민단체를 초점으로 하는 기사의 비율 역시 1차 파동 22.9%에서 2차 파동 33.8%로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1차 파동과 2차 파동에서 의사와 환자에 초점을 맞춘 기사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55.0%에서 79.7%로 크게 늘어난 셈이다.

<표 11> 초점인물 (%)

	6월	8월	전 체
환자, 시민단체	22.9	33.8	26.8
의사, 병원관계자	32.1	45.9	37.1
약사단체	4.6		2.9
정 부	7.6	9.5	8.3
국 회	6.9	5.4	6.3
검 찰	6.9	1.4	4.9
정부-의사	7.6	1.4	5.4
기 타	11.5	2.7	8.3
계 (사례수)	100.0 (131)	100.0 (74)	100.0 (205)

$$\chi^2=19.1, df=7, p=.008$$

7. 육성(sound bite) 분석

의료계 폐업사태에 대한 우리 방송사들의 보도에서 초점 인물들의 육성(sound bite) 방송율은 74.6%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방송사별로 보면 SBS가 86.4%로 가장 높고, MBC가 76.7%이고, KBS가 63.0%로 가장 낮았다. 결국 SBS는 거의 모든 기사에서 초점인물의 육성 발언의 일부를 방송한 셈이다.

이어서 초점 인물의 사운드 바이트 내용의 성격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해 사운드 바이트 내용을 정보적(사실에 관한 진술), 평가적(옳고 그름에 대한 진술), 정서적(좋고 나쁨에 관한 감정적 진술)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초점인물의 사운드 바이트가 있는 전체 기사의 과반수인 53.3%가 정보적이며, 13.8%가 평가적, 그리고 32.9%가 정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사운드 바이트 내용이 특정 사실에 관한 진술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초점인물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재미 있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환자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사운드 바이트 내용은 대부분 정서적(6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자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주로 감정적인 말들이 많이 보도된 셈이다. 반면에 나머지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의사나 정부관리들은 대부분이 정보적인 내용이 많았으며, 국회의원의 경우는 다른 집단에 비해 평가적(33.3%)인 내용이 많이 방송되었다.

<표 12> 초점 인물별 사운드 바이트 내용 성격 (%)

	환자, 시민 단체	의사단체, 병원	정 부	국 회	정부-의사	약사단체	전 체
정보적	30.2	57.4	83.3	66.7	81.8	50.0	53.3
평가적	5.7	13.0	16.7	33.3	18.2	50.0	13.8
정서적	64.2	29.6					32.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53)	(54)	(18)	(12)	(11)	(4)	(152)

$$\chi^2=51.3, \quad df=10, \quad p=.0000$$

8. 분쟁 조정자 역할 노력

마지막으로 방송사들이 분쟁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3사 모두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을 신속하게 보도하는 데에만 열중하였지, 정작 사태 해결을 위한 분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우리 방송사들은 분쟁 해결을 위해 갈등의 중심

이 되고 있는 의제를 찾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위한 대화의 장 마련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이를 제대로 촉구하지도 않았다. 또한 언론의 가장 중요한 분쟁조정자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제시노력도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송사별로 보면 모두 낙제점이나 그래도 KBS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노력을 한 것과는 달리 SBS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

<표 13>에서 보듯이 갈등의제를 부각한 기사는 전체의 8.3%에 불과하였는데, 방송사별로 보면 KBS가 12.3%로 가장 높고, MBC가 8.2%, 그리고 SBS가 3.4%로 가장 낮았다. 또한 사태해결을 위해 뉴스 시간에 분쟁의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간의 대화를 직접 촉구한 기사는 전체의 3.4%에 지나지 않는다. 방송사별로 보면 KBS가 4.1%, MBC가 2.7%, SBS가 3.4%이었다. 그리고 사태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기사는 전체적으로 8.3%밖에 되지 않았는데, 방송사별로는 KBS가 17.8%로 가장 높았고, MBC는 5.5%인데 반해 SBS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표 13> 조정자 역할 비율(%)

	갈등의제 부각	대화 촉구	대안 제시*
KBS	12.3	4.1	17.8
MBC	8.2	2.7	5.5
SBS	3.4	3.4	
전체	8.3	3.4	8.3

* p<.05

V. 맺는말

본 연구는 2000년 들어 6월과 8월에 두 차례 있었던 의약분쟁 사태를 언론이 조정자로서의 역할 노력을 얼마나 하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번 사태에 대한 텔레비전 방송사들의 뉴스보도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무엇보다도 이번 의료계 폐업사태에 대한 방송사들의 관심은 방송사간에 별 차이 없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사안의 중대성을 비추어본다면 당연한